



보도자료

2020. 7. 3.(금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전국 유치원 · 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

유치원 8천여 곳, 어린이집 35천여 곳 대상... 식재료 위생 관리 등 점검

- 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 · 어린이 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.
- 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급식인원 50인 이상 (집단급식소)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됩니다.
- 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,000여 개(유치원 4천여 개, 어린이집 12천여 개)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(위생부서)가 점검을 실시합니다.
 - * 점검반 구성 : 공무원(1인 이상) 및 소비자위생감시원
- 주요 점검내용으로 ▲보존식 보관 유무 ▲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.
-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, 유치원(4천여 개)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(지원)청이, 어린이집(23천여 개)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(보육부서)가 점검을 수행합니다.
 - 주요 점검내용으로 ▲개인위생 ▲시설·설비 ▲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,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.

* 점검반 구성 : 공무원(1인 이상)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

-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총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,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□ 한편, 관계부처(식약처, 교육부, 복지부) TF를 구성하여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□ 정부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모든 급식시설에서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하고, 육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하여 제공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○ 또한, 최근 안산 유치원 사례와 더불어 점차 기온도 상승하고 있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·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,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